

# 전북도, 3년 연속 행안부 청년마을 선정 쾌거

익산시 '사각사각' 최종 선정, 2025년까지 국비 6억원 지원  
도, 수공예 바탕으로 예코 기술의 중심지 '지구장이 마을' 조성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2021년 완주군 '다음타운', 2022년 군산시 '솔잎마을'에 이어 2023년 익산시 '(유)사각사각'까지 선정되며 3년 연속 해당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3년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에 익산시 청년단체 '(유)사각사각'이 최종 선정돼 3년간 국비 6억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유)사각사각은 2022년 전북 예비 청년마을 선정 단계로 도의 지원이 단체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또 심사과정에서

도·시군 관계자, 청년단체 및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지역의 강점을 설명하고 청년단체의 활동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을 강조한 점도 작용했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탐색·조사, 일거리 실험, 지역 내외부 관계 맺기 등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앞서 전북도에서는 총 12개 청년단체(7개 시군)가 접수했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3개 단체에 대해 현지 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친 후 이 중 익산시 (유)사각사각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유)사각사각은 수공예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했던 백제 중심 익산에서 청년 그린크래프터 양성, 제로웨이스트 제품개발 및 친환경 박람회 개최 등 예코 기술의 중심지 '지구장이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친환경제품 품평회와 축제를 통한 관계 및 생활인구 만들기(2023년), 환경이이템 창업체험 및 교육을 통한 그린크래프터 양성(2024년), 지구장이 마을 인증 친환경 제품 선정 및 박람회 등 지구장이마을의 마을 기업화(2025년) 순으로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마을은 지역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청년마을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부터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5개 청년마을을 선정해 개소당 8,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 18개 청년단체가 접수해 현재 심사 진행 중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걸쳐 선정이 완료되면 청년과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 청년마을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행안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도 적극 도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1회용품 줄이기 홍보 '힘 모아'

전북도-환경청-전주시, 전주동물원에서 나들이객 대상 진행

전북도는 전북지방환경청, 전주시와 함께 10일 전주동물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늘어나는 1회용품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많은 동물들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친구들과 오래 살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에 봄을 맞아 동물원을 찾은 나들이객에게 팬더, 토끼 모양의 동물탈을 쓰고 친근하게 다가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시·군과 함께 매월 10일마다 도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날 홍보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북지방환경청도 참여해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배달음식 주문시 1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근한 주제들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실천운동을 전개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 도, 제8기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출범

일자리·주거·복지 등 청년 삶 전반 정책 발굴 기대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청년들의 도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8기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이하 포럼단) 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포럼단은 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도내 대표 청년협의체로, 지난 2016년부터 도내 청년들의 현정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50개 청년정책을 전북도에 발굴·제안해 누리소통망(SNS) 홍보단 청년 금융교육프로그램 등이 2023년 전북도 사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8기 포럼단은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50명을 선발해,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청년정책포럼단의 발대식과 워크숍 행사를 개최했다.

먼저, 지난 7일 전북청년허브센터에

서 단원증 수여 등 발대식을 진행했으며, 이번 발대식에는 전라북도 청년정책 의결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청년위원들이 참석해 포럼단의 출발을 축하했다. 청년위원들은 향후 위원회-포럼단 역량강화, 정책 멘토링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8일에는 포럼단원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발굴 교육 워크숍도 진행했다.

이번 제8기 포럼단은 청년정책 5개 분야(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지원, 참여·권리)로 나뉘어 연말까지 운영되며, 올해는 시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발굴을 위해 권역별 정책발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 정책발굴 워크숍, 선진지연학 등 다채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청년들의 도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8기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이하 포럼단) 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로운 활동도 구상하고 있다.

이후 포럼단 활동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제안으로 구체화되며, 최종 정책제안은 도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경우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병삼 전북도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소멸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청년이 꿈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해 전북도와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창업기업, 남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청신호

4년간 국비 약 60억원 확보·매년 최대 25개사 지원

전라북도 창업기업의 인도, 베트남 등 남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 신규 주관 기관 선정결과에 따르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번엔 선정된 4개 주관 기관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4년간 최대 약 6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현재 운영 중인 베

트남 호치민시 KORETOVIET 센터를 활용해 아시아권 진출의 핵심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더불어 최장 4년간, 베트남과 인도의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중 연간 최대 25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제5기 전북도 인권위원 24일까지 8명 모집

도민 인권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개선권고 등 수행

전북도가 오는 24일까지 '제5기 전라북도인권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복지 △여성 △노

인 △이주인 △노동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 각 1명씩 총 8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신청자격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전라북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도내 소재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인권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신청은 대상자가 직접 하거나 관련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북도청 누리집 내 '도민소통-인권공감-인권지표살에서' 신청서를 받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도청 인권담당관실로 방문 접수나 이메일(aydid@korea.kr), 팩스(063-280-2009),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정책팀 ☎063-280-3152으로 문의하거나 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전북도는 인권활동 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권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남원 매동마을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선정

특교세 1억원 확보

전북도는 행안부 공모사업인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에 남원시 산내면 매동마을이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원시 매동마을은 현지 심사에서 주민 인식도 및 적극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한 해 3건의 산불이 발생했을 정도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만큼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인정받았다.

해당 사업을 통해 매동마을은 오는 11월부터 △산불감시 CCTV 설치, △비상소화장치 설치, △산불 위험도 표지판과 산불예방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추진하며 산불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산불 발생에 대비한 초기 대응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김제시 광고 제2023-286호

###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열람인에게 보냅니다.

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면적 (㎡)	변경 후	최소 면적	비고
폐지	29	주차장	김제시 신동동 194-2 일할	1,884.3	감1,884.3	-	-	김제시도시계획(2013-41호) (13.4.26.)	-
신설	27	주차장	김제시 신동동 195-3 일할	-	증12,160.7	2,160.7	증회	-	-

나.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9	주차장 폐지	- 면적: 1,884.3㎡ → 0㎡ (감 1,884.3㎡)	김제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청정화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차장 폐지
27	주차장 신설	- 면적: 0㎡ → 2,160.7㎡ (증 2,160.7㎡)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폐지된 주차장 주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신설

2. 주민의견 청취사항

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과

다. 의견제출 : 의견은 김제시청 도시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열람기간내 제출 (전화 : 063-540-3346, 팩스 : 063-540-3171)

라. 관계도서 : 식음생약(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결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김제시청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